

보도자료

보도 희망 일시	제한없음(즉시)		
배포일	2022. 01. 13(목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담당기관	(재)서울대학교발전기금	문의	기획팀 정미 (02-871-1621)

제 목 : 정인숙 동문, '月灘(월탄) 정재설 학술장학금' 12억원 쾌척

□ 정인숙(약학 69) 동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'월탄 정재설 학술장학금' 12억원을 쾌척했다. 이에 서울대는 2022년 1월 13일(목) 오전(한국시간) 화상회의를 통해 오세정 총장, 장판식 농업생명과학대학장, 류영렬 농업생명과학대학 기획부학장, 박일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부학장 등 주요 교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인숙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.

□ 정인숙 동문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다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동부 뉴저지에서 약 40년 간 약사로 근무했고 현재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. 정 동문은 부친의 인생철학을 롤모델 삼아 아버지 고향인 함흥 여성들을 미국에서 교육시켜 통일이후 북한의 여성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것이었다. 그러한 희망과 함께 아버지가 일생을 바친 한국의 농업 및 목재 산업을 돕는 것이 아버지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라 판단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기금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기부하기를 결정했다. 이를 통해 한국의 농업과 목재 산업의 발전 그리고 농부들을 도울 수 있는 분야 등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, 연구 지원, 농업 교육 또는 한국 농업 산업에서 중요한 모든 것에 사용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.

□ 부친 (故)정재설 님은 1900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. 이후 1928년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 도쿄국립대학교 농업대학에서 임학과를 졸업 했다. 해방(광복) 후에는 경상남도 마산시장, 농림부차관 그리고 농림부장관 등을 역임한 관료이자 행정가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창립한 인물이다.

□ 오세정 총장은 “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국 농업 진흥에 평생을 헌신하신 아버지를 기리며 전해주신 따뜻한 나눔은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귀감이 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 또한 “출연해 주신 ‘月灘(월탄) 정 재설 학술장학금’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대한민국 농산업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지원과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”이라며 뜻깊은 나눔의 정신에 존경과 감사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.

※ 사진설명: 감사패 전달 후 오세정 총장(서울)과 정인숙 동문(미국 뉴저지)이 온라인 상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